

11년째 새벽밥 짓는 '천사 어머니'

"정에 굶주린 아이들 사랑으로 채워 줘야죠"

■ '제 8회 사회복지의 날' 광주시장상 수상 김금자 씨

"어머니~ 밥 주세요." 종종걸음으로 지하식당 계단을 내려온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직원들이 조리사 김금자(52) 씨 부른다.

이미 식탁에는 따뜻한 쌀밥과 모락모락 김이 나는 된장국이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가 24시간 교대근무에 지친 직원과 아이들을 위해 새벽밥을 지어온 것도 11년째. '어머니'란 호칭은 푸근한 미소가 변함없는 그녀의 대한 고마움이다.

"제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 시장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씨를 만나기 위해 6일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 있는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았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에는 해마다 사회복지 분야 공로가 큰 인사들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김씨가 영아일시보호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3년이다. 김장철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온 것이 계기가 돼 날마다 50여 명의 직원과 아이들의 세 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세탁업무를 맡은 직원이 그만두면

서 본격적으로 보호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 인력부족을 고민하던 소장은 그녀의 성실함을 눈여겨보다가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전에 버림받은 아이들이 눈에 밝히던 그녀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기저귀와 이불 등 세탁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어릴 땐 하루에 2천장이 넘는 천기저귀와 이불 등을 세탁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3년 동안 일하고 조리사로 자리를 옮겼다. 만3세 미만의 아이들을 지내는 보호소의 특성상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식단을 따로 마련해야 했다. 콩나물 하나를 무쳐도 아이들 급식용과 직원들 급식용으로 나뉘었다. 아이들 반찬에는 과일 등을 사용해 훨씬 부드럽고 자극을 덜 받게 하는 노하우도 생겼다. 원치않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최소한 '먹을 것'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챙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직원들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조리사로 근무중인 김금자씨가 식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벽 6시에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정작 식구들의 밥은 잘 챙겨주지 못했다. 다행이 두 아들이 "괜찮다"며 오히려 어머니를 챙겨주며 미안한 마음에 그만 두고 싶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김씨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제가 상을 수상하게 돼 미안하다"며 "정에 굶주린 아이들을 배속해 사랑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인한기자 ahj@kwangju.co.kr

故 윤이상씨 부인 40년만에 모국 방문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 선생의 부인 이수자(80) 여사가 40년 만에 모국을 방문한다.

윤이상 평화재단은 이 여사가 오는 10일 입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다음달 3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2007 윤이상 페스티벌' 기간에 치러지는 윤이상음악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고 고향인 부산 등에 들러 친지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으로 한국을 떠난 뒤 윤이상 선생처럼 베를린 자택과 북한이 제공한 평양 근교의 집을 오갔으나 모국 땅은 밟지 않았다.

작년 1월 '동백림 사건'이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범죄사실이 확대, 과장됐다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조사결과 발표이후에도 남편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고국 방문을 미뤘다.



GS칼텍스·포스코 인재육성 앞장

여수·광양 등 지역 어업인 자녀에 장학금

GS칼텍스와 포스코가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4일 여수지역 중·고생 250명과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생 16명에게 장학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사진>

GS칼텍스는 여수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 성적 상위 4% 이내 중학생 1인당 25만 원씩, 고등학생 1인당 1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고 전 학기 평균 학점 4.0점 이상인 대학생에게 250만 원씩을 전달했다.

GS칼텍스는 올 하반기에는 여수지역 수산업종사자 자녀 192명에게 장학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여수지역 중·고·대학생 4천692명에게 총 36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올해부터 5년간 광양과 여수(묘도, 남해, 하동 지역 어업인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 어업인 중·고생 자녀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보충이 필요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매년 30만원의 장학금을 2011년까지 분할 지급 받게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광양=김춘호기자 chkim@

가수 현철, 방송 녹화중 갈비뼈 부상

가수 현철(62)이 5일 저녁 KBS 추석특집 '우리는 명콤비' 녹화 도중 계단에서 떨어져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졌다.

현철은 녹화를 위해 무대에 오르던 중 계단에서 떨어졌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바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오른쪽 늑골이 골절됐고 부러진 뼈에 폐가 찢려 기흉이 생겼다"면서 "전치 6~7주 정도의 부상으로 보인다.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10여 일 가량 입원한 후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현철 씨가 무대에 오르다가 갑자기 계단에서 떨어졌다"면서 "녹화 분량 중 현철 씨가 촬영한 한 코너를 빼야 하는 상황이며 방송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철은 14~26일 서울 잠종체육관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MBC 특별공연-쇼뮤지컬 추석판타지'에도 캐스팅된 상태여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鐵의 사나이 '기술사 2관왕'

광양제철소 민경준 부장 '철야금 기술사' 획득

"담금질한 철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스스로 쉬지않고 기술을 연마해야 살아있다는 기본을 느낍니다. 기술사 자격증은 목표가 아니라 제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간압연부 민경준 부장(49)이 지난 3일 기술관련 자격시험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제 83회 '철야금 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05년 '금속재료 기술사' 시험을 통과한

데 이은 2관왕이다.

'기술사 2관왕'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얻기까지 민 부장의 생활은 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짬을 내 시험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랜 직장생활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후배 사원들에게 술선수법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희식 다음날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에 매진했다.

민 부장은 "기술사 자격 취득이 내 자신의 업무능력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서 "후배들이 학습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버리지 않고 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축해야"

(모국 떠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

박원순 이사 전남대 특강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6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날 오후 전남대학교 융복합에서 사회과학대 초청으로 가진 '한인 디아스포라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스라엘보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도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아스

포라(diaspora)는 모국을 떠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는 "내가 유학했던 1991년 영국 런던에 3천 명이었던 한국인이 지금은 3만 명이 될 만큼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 디아스포라는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코리아 아메리칸이 미국 내 베트남·필리핀인들보다 소득이 낮은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인끼리의 협동,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부족하지만 위기의 한인들을 돕는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겪는 한인들을



그때그때 돕는 것도 좋지만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

자산공 광주·전남지사, 결연마을 봉사활동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은 6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곡성군 곡성읍 신리마을을 방문해 방송시설 및 의자만들기, 런닝머신 등 1천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고 다양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문원섭(전 광주일보 논설위원·국장)씨 막내 성욱(광주 도시철도공사)군 김한섭씨 차녀 진아(광주일보 조사부)양=8일(토) 오후 4시 광주시 광산구 왕지농원.
- ▲고준석씨 장남 현철군 임채욱씨 장녀 수진양=8일(토) 오후 1시 리더스클럽 10층 컨벤션홀.
- ▲김홍식(전 광주시 첨단산업과장·광주시 서구 추무국장)시 장남 유석군 송충식씨 차녀미영=8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시 용봉동 동산교회.
- ▲이호준(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씨 장남 대경(대우건설)군 제영만씨 차녀 미나양=8일(토) 오후 2시 서울 대우빌딩 6층 예식홀.
- ▲서득주(대한화재 부사장)씨 차남 형석군 배승수씨 장녀 진희양=8

- 일(토) 오후 6시 서울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 ▲임재관(광주서초 교감)·김미희(광주신암초 교감)씨 장남 성준군 송형욱(전남도 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씨 장녀 지희양=9일(일) 낮 12시20분 경북공예원컨벤션 1층 경복홀.
- ▲오종호씨 장남 진성군 홍중호씨 장녀 은영양=9일(일) 오후 1시40분 상무리컨벤션웨딩홀 2층 데이지홀.
- ▲이봉남씨 장남 상규군 차성만(동두천 다나스타터CC 대표)씨 차녀 지은양=7일(금) 오후 5시 서울 웨딩의 전당 1층 그랜드볼룸.
- ▲정대영(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씨 장남 윤태군 박종술씨 차녀 미현양=8일(토) 낮 12시 그랑시아 웨딩홀 2층 사파이어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

-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 강의=8일 오후 2시~5시, 광주대도서관 5층. 음·양택, 수택, 나경, 지도상명당, 장방요강 등. 문의 011-

609-8117, 670-2161

동창·동문회

- ▲구림초교 제 49회 동창회(회장 윤전석) आयु회=8일(토) 오전 7시 30분 광주시청 앞. 017-603-0080
- ▲재광 전주 영생교 총동문회(회장 배기영) 모임=11일(화) 오후 6시30분 바다와 육지. 381-5233
- ▲조선대 사회과학대 총동창회(준비위원장 고재유) 창립총회 및 제 1회 홀 커밍데이=15일(토) 오후 3시 모교 서석록 4층 대강당. 230-6761-3

종친회

- ▲연양김씨 광주 종친회(회장 김남진) 모임=7일(금) 오후 6시30분 명덕회관.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정근) 월례회=11일(화) 오전 11시 지연 회의실. 225-5631
- ▲문화류씨 해남문중(회장 류호

섭) 임시총회=9일(목) 오전 10시 문중회관. 011-618-2912

모집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북구지역 결혼 이주여성 30명. 한글·컴퓨터·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3700

부음

- ▲이정민씨 별세 한재(조선대 경영학부 교수)씨 부친상=발인 8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231-8902
- ▲이상홍씨 별세 형섭(사업)·인섭(자영업)씨 부친상 박갑현(자영업)·이춘화(회사원)·김진수(광주일보 차장)·방부상=발인 7일(금) 광양장례식장 1분향소. 061-761-5500
- ▲양선호씨 별세 문정(나주소방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 특별한 분양
☎ (062) 521-1100